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보 도 자 료

2012. 9. 25(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일자	2012. 9. 24(월)	담당자	김해식 연구위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3775-9051)	연락처	02-3775-9028 010-7404-5057	총 2 매

제목: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제도의 시행 과제

새 보험료 산출방식의 순기능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회사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뒷받침할 감독 인프라 보강과 소비자의 신뢰 제고가 필요

보험연구원(원장 김대식)의 김해식 연구위원 등은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지난 금융위기는 시장경쟁이 충분하지 못하면 소비자의 교섭력이 낮아지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게 전달되지 못하면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하여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은 보험회사에 다양한 재량권을 허용하는 가격결정방식이다. 이에 보고서는 현금흐름방식이 시행되면 국내 보험시장도 가격자유화의 성숙 단계에 들어서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현금흐름방식의 시행에는 준비금 감독과 보험료 결정이 혼재된 기존 감독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고, 가격결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공시제도의 보완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현금흐름방식은 보험회사가 다양한 원가요인을 명시적으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보험료 결정방식과 차이가 있다. 현행 보험료 산출방식은 위험률 이외의 원가요인들은 안전할증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이런 안전할증을 덧붙인 위험률에 기초하여 보험료를 산출한다. 따라서 현행 방식에서는 원가 요인별 관리가 어렵고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이전에 수익성을 예측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시장 상황에 따라 보험상품의 판매 중단이나 보

협료 급등 등 경직적인 대응이 일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현금흐름방식이 도입되면, 첫째, 보험회사가 **장래 위험의 변화 특성**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이 지금보다 유연해질 것이다. 둘째, 사전에 수익성 분석에 기초한 **상품 판매로 부실한 상품의 출시가 억제**되고 **보험회사의 기업가치가 높아질** 것이 기대된다. 셋째, 다양한 가정을 반영한 가격결정이 가능하므로 **복잡한 상품설계가 용이**해지는 한편 **상품의 단순화도 촉진**될 것이다. 넷째, 현금흐름방식은 보험회사에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금흐름방식을 시장에 적용하는 데에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가능성이 나 시장의 신뢰 부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과 관련된 내부통제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양한 가정과 추정방식이 사용되는 현금흐름방식의 특성상 보험회사는 부서 간 상호 모니터링과 검증을 담당하는 선임보험계리사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문서화를 통해 산출된 보험료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상품규제에서 준비금 감독으로 감독방향의 전환**이 필요하다. 감독당국도 현금흐름방식을 적용한 상품을 자율상품으로 간주하여 서류제출이 필요 없음을 선언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준비금 적립이 강조되면서 여전히 보험회사의 가격결정이 감독당국의 준비금 평가에 묶여 있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보험회사가 준비금 평가에 사용되는 표준위험률이나 표준이율에 준하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회사 간 차별적인 가격결정과 가격경쟁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 최소한의 준비금 적립이라는 재무건전성 감독과 보험회사의 보험료 결정이 분리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현금흐름방식의 연착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험료 산출은 **소비자 공시의 강화**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상장회사들을 중심으로 최근 국내 보험회사들의 내재가치 공시나 해외 보험회사들의 공시 사례를 고려하여 감독보고 및 공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